

믿음은 언약을 따르는 것

창세기 17:1-14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솔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기도와 실제로 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데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생활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늘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지만,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가다가 불안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동안 믿음의 행동을 해서 믿음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했더니, 또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는 세상적인 대책을 세우다가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꾸만 실수를 할까요? 왜 그의 믿음의 고백과 삶 사이에 많은 간격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희미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의 삶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 세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만나셨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이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잠자고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고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에게 하신 언약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절에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99세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힘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때, 그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의 삶의 자리,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에겐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절망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기 위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한 가운데서, 사업에서, 그리고 문제와 싸우는 인생의 격전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100%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4-5 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방황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실 때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시몬을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면서 그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아예 너를 반석처럼 든든하게 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만나고 전도자로 나가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높으신 아버지’,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람이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늘 자신의 문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를 낳느냐 못 낳느냐, 사례와 하갈의 문제,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의 갈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고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 가족만이 아니라 열국을 보게 한 것이지요. 내 집안의 문제만을 생각하던 아브라함을 온 세계를 향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약의 표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그에게 비전도 심어주었습니다.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실 것이고 그를 통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나이, 능력,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다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실패했습니다.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하갈을 첩으로 얻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언약의 표시를 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10 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팔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 태어난 아기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이 아닌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할례와 같은 언약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른 언약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30:6 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롬 2:28-29 에서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말을 치는 사람들은 말 엉덩이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생식기에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세계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언약을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두 가지 표를 가진 사람들로 나누어질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마귀가 “짐승의 표”를 찍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표시, 마음의 할례,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